

전남교육 정책 알리기 나서

핵심정책 PR 및 가정 교육에 대한 이해 폭 넓혀 주·야간으로 진행돼 맞벌이 부부에게 큰 호응



전남도교육청이 10월 1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서부, 동부, 중부 3권역으로 나눠 학부모 대상 회복적 생활교육 기본과정을 큰 공감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도교육청 소속 전남학부모지원센터는 학부모교육을 선도적으로 이끈다는 입장 아래 학부모에게 전남교육의 핵심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가정교육의 일환으로 '학부모 회복적 생활교육'을 기획

했다.

3권역 중 한 과정은 맞벌이 학부모를 고려해 야간 과정으로 열었고, 두 과정은 주간에 진행했다. 특히, 서부 교육은 종합 만족도 100%, 동부 교육은 감사 및 내용 만족도가 100%로 나타나 학부모의 뜨거운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1기인 서부권은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10월 15일부터 지난달 19일

까지 오후 7시부터 9시50분까지 광주과학고등학교 장경아 교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2기인 동부권은 광양부루나호텔에서 지난달 12일부터 14일까지 한국평화교육원 유태숙 팀장의 강의로 열렸다. 마지막 3기인 중부권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나주시호텔에서 한국평화교육원 이형우 팀장의 강의로 이뤄졌다.

이들 세 과정의 70% 이상을 수료한 학부모들에게는 기본과정 15시간 수료증을 수여했고 차후 심화과정 신청 시 우선 선정된다.

중부권 교육을 수료한 이연주 학부모(영광공고)는 "일상생활에서, 자녀와 대화할 때 경청하고 질문하는 법부터 바뀌어왔다"며, "가정에서 부모가 변해야 아이들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모든 학부모가 회복적 생활교육을 수강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석용 도교육감은 "학부모들이 전남교육 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학교 학부모회와 학부모회 네트워크가 자치기구로서 회원들의 협의하에 심화과정, 전문가과정을 개설해 많은 학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학교와 교육청은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서 가장 작은' 문평초 학생들 한국화 작품전

6일까지 빛가람혁신도시 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교생 21명으로 나주에서 가장 작은 시골학교인 문평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한국화 실력을 뽐내는 전시회를 마련했다.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자리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층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문평의 사계 2' 전시회는 문평초 학생 5명의 한국화 작품을 포함한 24점과 '마한·백제인 문화대탐험 화첩' 7점을 선보인다.

문평초는 '짙짙한 오늘로 내일이 설레는 문평 스타트업' 교육과

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찰·생각·표현 : 함께 더불어 변화와 성장의 교육과정'을 통해 지난해 3월부터 한국화 교실을 운영해 왔다.

이번 한국화 전시회는 그동안 배우고 익힌 한국화 표현 기법을 바탕으로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담았다. 봄 새싹이 보여주는 녹색과 붉은 꽃의 아름다움, 선선한 바람이 그리운 여름, 붉게 물들며 떨어지는 낙엽의 가을 풍경 등을 표현했다.

이와 함께 문평초 한국화 교실은 전남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에 참여해 우리 역사와 문화적 뿌리인 마한·백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활동을 실시했으며, 역사문화 탐험의 결과물로 이번에 7점의 화첩도 함께 전시했다.

전시회를 준비한 김현덕 문평초 교사는 "올해 생각의 교육과정으로 이룩한 아이들의 변화와 성장을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어 너무나 뿌듯하다"며 "아이들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창의융합교육원, 2019 영재교육원 수료식 개최

수학·과학 분야 영재 누적 수료생 6268명



광주창의융합교육원이 지난 2일 창의융합교육원 대강당에서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학년도 영재교육원 수료식을 가졌다.

영재교육원은 2003년부터 광주 지역 수학·과학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영재를 조기 발굴·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수료자 115명(중1과정 60명, 중2

과정 37명, 중3과정 18명)을 포함해 총 626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창의융합교육원 영재교육원은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 수학·과학 분야의 탐구중심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활동으로는 탐험 자율연구활동 및 성과발표회, 영재캠프, 석학과 함께하는 진로멘토링, 체험 수학의 날, 전체 관측 활동, 전문가 초청 강연 등 1학년의 경우 총 190시간, 2·3학년의 경우 총 285시간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수료생들에게 국가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는 당부와 함께 축하했다.

조인호 기자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함께하는 배움 발표회' 개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문화강좌 수강생들이 그동안 교육과정을 통해 갖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함께 하는 배움 발표회'를 7일부터 13일까지 회관 전시실 및 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안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청소년 문화체험 교육에 참여한 참가자 모두가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자리로 작품전시 및 공연 발표, 체험마당으로 진행된다.

작품전시는 성인문화강좌의 한글교실 등 6개강좌, 공연발표

는 바이올린 연주 등 7개 강좌,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마당에서는 레진아트 열쇠고리 만들기, 하마리움 소품, 풍선작품, 캘리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작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화순북면중, 백아산 산골 소년 전남미래인재 뽑혀

화순북면중 1학년 김주현군이 2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으뜸인재 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으뜸인재 증서를 받았다.

지난 11월 초 전라남도는 2019년 '전남스타 200인 육성사업' 지

원대상으로 과학·예체능 우수학생 53명을 선발하였는데, 김군은 과학분야 5명에 뽑혀 장기간 전라남도로부터 장학금 등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2차 면접 심사에서는 미래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잠재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김군은 화순 북면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송단마을에 사는 산골 소년으로, 이미 초등학교에서부터 과학에 관심을 갖고 두각을 나타내어 미래 과학스타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화순=박순철 기자

무안마을학교가 한 자리에... 2019. 성과 나눔의 날



무안교육청에서는 지난달 30일 8개 마을학교 운영자 및 활동가, 학생, 학부모 등 2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성과 나눔의 날을 가졌다.

네나들이 마을학교팀 장구 공연 식전 행사에 이어, 백금표 월선농 어촌인성마을학교 대표의 인사말

을 시작으로 마을학교 이야기 동영상 상영, 청망청망꿈나무나루사 마을학교에서 준비한 해금과 모듬북 공연이 진행되었다.

각 마을학교 부스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전체 참가자들이 모여 레크레이션으로 성과 나눔의 날이 진행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마을학교 학생은 "무안지역 전체 8개 마을학교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기차기, 전래놀이와 벗짚으로 새끼줄 꼬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한 학부모는 무안지역 마을학교

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이 뜻깊었고 학교 밖 마을도 학교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됐다"며,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역민들에게 더 널리 알려지고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재철 교육장은 "올해는 마을학교를 심는 씨앗 단계"라며 "내년에는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민, 학교 뿐 만이 아닌 마을공동체가 협력하여 아이들과 학교, 마을이 더 나아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무안마을교육공동체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